

“비엔날레 작품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대만 작가 준양씨 잡지 ‘DAM’

광주일보에 끼워 내일부터 배포

“비엔날레 작품을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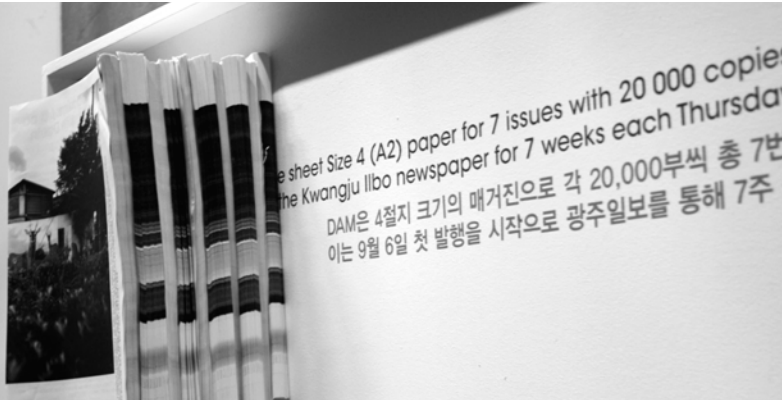
오는 6일 개막하는 제 9회 광주 비엔날레(9월 7일~11월 1일) 참여 작가인 대만 출신 준양씨의 ‘DAM (Daen Art Market)’ 매거진 프로젝트를 가 화제다. 대만시장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 작가, 상인, 큐레이터 등과 협업으로 지역 공동체의 관심 사항을 담은 잡지를 발간, 지역민들에게 배달기로 하면서다.

오는 6일 A2 크기로 첫 발행되는 잡지는 모두 2만부, 잡지는 광주일보에 끼워 전 지역에 배포되며 비엔날레 전시관과 대만시장 대안예술공간인 ‘미테우그로’등에서도 구할 수 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2만부씩 발행된다. 지역민들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안방에서 관람할

수 있는데다, 무료로 소장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첫 회에는 영문과 국문으로 잡지 소개 및 제작 계획을 밝힌다. 잡지 커버는 이세현 작가의 ‘사람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작품을 전면에 할애하는 등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2면에는 매주 ▲예술 공동체로서의 대만시장 ▲예술가들이나 큐레이터들이 대만시장을 찾는 이유 ▲지역 상인들의 현재 상황 ▲대만 시장, 지역 예술가, 큐레이터들이 보는 광주 비엔날레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과 지역 예술가들간의 관계 등을 주제로



준양씨의 잡지 ‘DAM’이 전시될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 가판대.

다양한 논의를 펼쳐보인다.

대만시장 상인들, 지역 젊은 작가와 중진 작가들, 참여작가 등이 참여해 토해놓는 낯선 대화가 고스란히 실릴 예정인데다, 비엔날레가 지역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광주시의 지역 미술 지원 형태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미술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준양의 작품에는 비엔날레와 지역민, 지역 예술계의 고민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준양씨는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위상을 확고히하고 있는 미술제로 이 기간에는 수많은 국제 미술계 인사들이 광주를 찾는다”라며 “그만큼 지역민, 지역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잡지를 통해 비엔날레와 대만시장, 한 발 더 나아가 광주시민들간 다양한 의견과 담론이 펼쳐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게 준양씨 복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에 세워진
황지해 조형물

비엔날레전시관 공원 설치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씨가 만든 조형물 ‘동행’이 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공원에 설치됐다.

‘동행’은 물방울 모양의 높이 6m·4m짜리 조형물 2개로 이뤄졌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생의 의미를 담은 비오톱 조형물이다.

황 작가는 올해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돼 비엔날레 기간 첼시플라워스에서 선보였던 작품 중 ‘메모리얼 체어-바람이 심한’이라는 작품을 전시한다.

황 작가는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된 화원(Forbidden Garden)’이라는 작품으로 영국 왕립원예협회(RHS) 주최로 열린 첼시플라워스에서 ‘쇼 가든’ 부문 금메달과 올해 신설된 회장상 등 2관왕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진=최현배기자 choi@

광주고법원장에 김용현

대법원은 4일 김용현 서울가정법원장(57·연수원 11기)을 광주고법원장으로 전보하는 등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전보·겸임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영남 18면〉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김이수(59·9기) 사법연수원장의 후임으로는 최병덕(57·사법연수원 10기) 대전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는 조병현(57·11기) 서울행정법원장이 임명됐다. 대전고법원장은 김중백(57·10기) 특허법원장이 겸임한다.

신임 김용현 광주고법원장은 법이론과 실무능력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직원들 개개인의 신상까지 기억해 세심하



게 배려하는 자상함으로 법관과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재판의 목표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지론을 바탕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정에 역점을 뒀 경이적인 수준의 성과물을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여야 협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추천

여야는 4일 여야 협의의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강일원(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강 부장판사는 사시 23회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



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역예산 적극 챙겨 주세요”

강운태 시장·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태풍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가 요청한 지역현안 예산 중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 예산에 대해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때 적극적으로 지역예산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태풍으로 광주시가 443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복구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광주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광주 남)은 “시가 요청한 지역현안 예산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별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

조 요청한 사업은 총 37건에 1조5447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신규 요청 사업은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20억원) 등 17건 1105억원이다. 증액 요청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793억원→1610억원) 등 20건 1조4342억원이다.

이 외에도 강 시장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광주지역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복구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태풍으로 인해 광주시가 443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부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장병완·강기정·김동철·이용섭·임내현·박해자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흥·영암·완도·진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가 4일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전남지역 4개 군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이미 선포된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등 5개 지역을 포함해 전남 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추가 피해조사결과와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순천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결 달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추가피해 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姜시장 ‘검코’ 증인출석 재요구

市 “상임위에 출석 사례 없다”…무산 가능성

“3D컨버팅(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검코)”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제차 출석을 요구했다.

문상필 특위위원장은 4일 기자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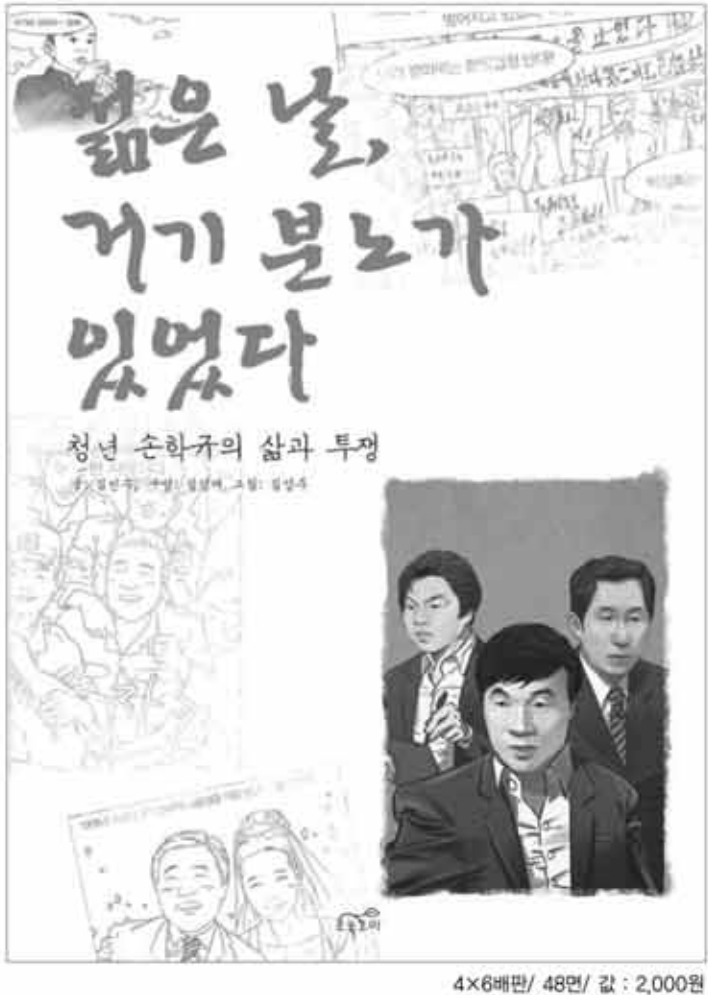
담회를 열고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며 “강 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증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강 시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7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유종성 대변인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정 상임위원회에 광역단체장의 증인 출석 사례가 없다”며 “11~14일 미국 현지에서 3D컨버팅 기술대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기술대사가 끝난 후에 실시될 시장질문(20~21일)을 통해 시장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특위가 주장하는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만화로 보는 청년 손학규

엄혹했던 유신 독재시절
학생운동과 노동·빈민운동,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운 민주화운동의 전사(戰士).

고(故) 조영래 변호사,
고(故) 김근태 의장과 더불어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던 손학규.

술한 구금과 체포, 수배생활로 인해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아내와 딸마저 헤어져 지내야 했던 청년.

그 청년 손학규의 삶과 투쟁,
불의에 대한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이 한 권의 만화에 담겨 있다.

4x6배판/ 48면/ 값 : 2,000원

조록도미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중 문의 : 070-4086-2665



‘저녁이 있는 삶’에 바치는 헌정 앨범과 뮤직비디오

박치음

순천대 교수,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창단 멤버,
노래운동 1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겸 가수.
1980년대 〈전진가〉, 〈내사랑 한반도〉 등을 익명으로 발표했고,
이후 〈미안해요 베트남〉, 〈이 외로운 밤에서〉 등을 발표.

*교보문고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D OST : 박치음/ 탭 : 최수미/ 발라드 : 부찬식
DVD ‘저녁이 있는 삶’ 노래배우기 뮤직비디오

값 : 10,000원